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 유 진(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현대사회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으로 국가와 민족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단일민족, 단일 혈통이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는 현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전체 결혼의 13.6%가 국제결혼이라는 통계수치는 이제 더 이상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이 우리사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국제결혼이 우리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제결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강유진, 1999; 구차선, 2007; 최금해, 2005)와 그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연구(박은애, 2007; 오성배, 2005; 이진숙, 2007)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들이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에 집중되다 보니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고충을 겪고 있는 남성에게 대한 관심은 소홀하였고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국제이주여성 배우자의 적응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서의 적응 문제가 한 사람의 변화나 동화가 아닌 두 배우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적응과 특성에 대한 이 연구 주제는 더욱 참신성이 돋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구의 구성 및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제목과 연구목적 및 분석방법에서의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연구제목에서는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목적에서는 심리적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결과분석에서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연구제목과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이 서로 일치하도록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인의 도출과정과 범주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가족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변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차별감, 성역할 태도 및 자아존중감 변인은 심리적 변인의 하위 범주로 두고 또 다른 심리적 변인인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왜 별도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여러 변인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국제결혼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한다면 그 연구 결과는 보호요인은 강화하고 위험요인은 감소시키는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 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소득수준, 결혼지속년수, 연령차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인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남성 배우자를 연구할 때의 변인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라는 연구대상자의 특수한 위치를 생각할 때 부인의 출신국, 한국어 교육 여부, 시부모 동거여부 등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척도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개념에 대한 용어정의가 필요하고, 선행 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다면 선행연구와 달리 수정한 점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총 몇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본 연구에 맞도록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존의 척도에서 어떤 문항이 제거되고 연구 목적에 맞게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스트레스의 개념이 전체 가족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성 배우자가 평가하는 것인지, 남성 배우자가 가족에게 느끼는 스트레스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정의가 요구됩니다.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범주로 재정, 직업, 건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 스트레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 문화의 차이, 언어소통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넷째, 연구목적과 데이터 특성에 맞는 분석기법을 적용한다면 그 현상을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 3>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결혼적응의 일반적 경향 보다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경향을 분석하고 표로 제시한다면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국제결혼 남성 배우자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이들 남성 배우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구차선(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8), 319-360.
- 박은애(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12(6),

21-42.

최금해(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19-244.